

트릭스터의 역사적 기능

- 꾀쟁이 하인 설화 중심으로

나수호*

1. 들어가면서
2.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트릭스터의 역할
3. 트릭스터의 실용성
4. 역사적으로 본 트릭스터
5. 나오면서

<국문초록>

이 연구는 트릭스터라는 인물과 그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트릭스터담의 역사적인 기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사회체제가 지지하는 도덕적·윤리적 가치관에 어긋난 경우에는 얼핏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왜 계속해서 계승이 되었느냐는 물음에 답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갓설이 <스토리텔링 애니멀>에서 서사가 도덕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응이며 트릭스터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하려는 모색이기도 하다.

먼저 트릭스터의 이중적인 성격과 씩씩한 서양 학자들의 의견을 간략히 소개한 후에 경계성을 트릭스터의 기본적인 특징을 삼았다. 이어서 트릭스터의 실용성을 살펴보았는데 도덕적인 가치관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체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진화론적인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질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문을 다루었다.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와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 등장하는 트릭스터 신을 예로 들었는데 주 연구 대상은 한국의 상전을 속이는 피쟁이 하인이었다. 이 설화는 반상갈등을 다룬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상전 이외에도 하인이 여자나 불쌍한 행인과 같이 지위가 낮은 사람 들까지 속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트릭스터는 하층 영웅으로서 상층에 대해 반항하는 인물이 아니라 사회구조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경계적인 인물로 파악된다. 이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면 먼저 기존 세상을 없애야 가능하다는 인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비설화와 같은 주제나 인물을 다루는 기록문학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저자의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서 트릭스터가 다르게 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결국 피쟁이 하인과 같이 구비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는 반사회구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창조의 길잡이라는 역사적 기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트릭스터, 역사적 기능, 경계성, 피쟁이 하인

1. 들어가면서

최근에 미국 학자인 갓셜(Jonathan Gottschall)이 2012년에 저술한 <스토리텔링 애니멀>(*The Storytelling Animal*), 즉 ‘이야기하는 동물’과 접하게 되면서 다시금 트릭스터라는 인물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우선 이 책의 제목과 하위 제목(“이야기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법”)부터 눈길을 끌었다. 책을 펼쳐보니 저자가 핵심과제로 삼은 문제는 ‘인간이 왜 서사에 중독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다. 이야기가 재미있기에 우리가 좋아한다는 일반적인 답은 너무 단순하며 심지어 동어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갓셜은 “진화는 무자비하게 실용적이다. 사치스러워 보이는 소설(픽션)이 어찌된 인간의 생활에서 제거되지 않았을까?”¹⁾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이야기

1) Jonathan Gottschall, *The Storytelling Animal*, New York: Mariner Books, 2012, p. 24.

를 들을 때에 왜 재미를 느낄까'라는 질문이 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이어서 저자는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그 중에 이야기가 갈등을 해소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사회학적인 기능이나 좌뇌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과 상관없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지어내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인간의 뇌가 근본적으로 이야기와 의미에 중독되어 있다는 뇌과학적인 이론 등과 같은 것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야기와 도덕을 다루는 장이 가장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란 비도덕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것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독자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비난하게 만든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저자는 이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는 공동의 가치관을 보강하며 공동의 문화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사회를 하나로 묶어놓는 고대적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 이야기는 사회적 무질서, 즉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향에 대한 저항세력이다.”²⁾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이 개념을 강조한다. “이야기는 인간의 사회생활의 접착제이다. 공동체를 규정하며 결합시켜 준다.”³⁾

갓설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이야기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것이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합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다고 해도 과연 트릭스터 이야기도 그럴까라는 의문이 든다. 사람들이 트릭스터 이야기를 꾸준히 구연하고 듣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트릭스터의 의미와 기능이 언제나 같은 것인가, 아니면 시대마다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인가? 물론 여느 구비문학처럼 트릭스터 이야기도 채록된 자료나 현재 구연되고 있는 자료를 보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거에 트릭스터 이야기가 어떻게 구연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기능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트릭스터와 같은 인물을 분명하게 정의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에서 국내·외 이론과 설화의 검토를 통해 트릭스터가 역사의 변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

2) *Ibid.*, pp. 137, 138.

3) *Ibid.*, p. 177.

느나는 의미로 그의 역사적인 기능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하고자 한다.

2.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트릭스터의 역설

트릭스터 연구는 서양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며 북미원주민 신화 연구가 그 출발점이 되었다. 북미원주민 설화의 향유층은 트릭스터를 신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은 초기 서양학자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브린톤(Daniel Brinton)⁴⁾이나 보아스(Franz Boas)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이었던 인물이 타락해서 트릭스터가 되었다는 ‘퇴화론’이나 원래 트릭스터였던 인물이 나중에 신으로 승격되었다는 ‘진화론’을 펼쳤는데 한 인물에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신적 성격과 파괴적이며 부정적인 트릭스터적 성격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에 그랬던 것이다.

북미 이외에도 이렇게 역설적인 성격을 지닌 신을 종종 볼 수 있다는 점(유럽 중심부인 그리스의 헤르메스, 유럽 주변부인 스칸디나비아의 로키, 아프리카의 에슈엘렉바 등이 좋은 예가 된다)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트릭스터의 모순적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수수께끼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선 19세기 말에는 백인 학자들이 연구 대상인 원주민들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 등으로 인해 善·惡, 明·暗 등과 같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문화를 창조하는 긍정적인 신과 바보 같은 행동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부정적인 트릭스터가 동일한 인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스칸디나비아 신

4) *The Myths of the New World: A Treatise on the Symbolism and Mythology of the Red Race of America*, London: Trübner & Co., 1868; “The Hero-God of the Algonkins as a Cheat and Liar,” *Essays of an Americanist*, Philadelphia: Porter & Coates, 1885-1890, pp. 130-134.

5) “Introduction,” in J. Teit, *Traditions of the Thompson River Indians of British Columbia*,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1898, pp. 1-18; “Mythology and Folk-Tales of the North American Indian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27(106), 1914, pp. 394-396.

화의 경우에는 로키가 절대악의 상징이라는 등 기독교의 사탄을 연상시키는 말로 묘사되었고⁶⁾ 라딘이 연구한 위네바고족 트릭스터인 왓준카가를 사탄과 동일시하는 위네바고족 사람들도 있었던 것⁷⁾을 고려해보면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트릭스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계속해서 트릭스터의 이중성, 혹은 모순성이나 역설성과 씨름해왔다. 1940년대에는 톰슨(Stith Thompson)이 트릭스터가 이중적인 성격이 아니라 문화영웅·피쟁이 사기꾼·바보라는 삼중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이론을 제시했다.⁸⁾ 1950년대에는 위에서 언급한 라딘과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도 그 문제를 다루었다. 라딘은 트릭스터가 원래부터 신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제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로 나중에 신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릭스터는 오히려 육체·정신적으로 미분화된(아직 발달되지 않은) 인물의 발달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 라딘 이론의 핵심이다.⁹⁾ 한편 레비스트로스는 트릭스터의 중개하는 역할을 언급함으로써 그의 이중성 혹은 모순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중성이 트릭스터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런 연구를 여기서 다 논의할 수 없지만 서양에서는 20세기 중반부터 트릭스터의 이중성을 제대로 파악하자는 것이 트릭스터 연구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가 20세기 말에 들어서는 트릭스터를 이중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이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적용한 결과가 아닌가 묻는 목소리도 들리기

6) 브린톤이 활동하던 비슷한 시기의 연구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Loke... represents evil in the seductive and seemingly beautiful form in which it glides about through the world. ... Loke symbolizes sin, shrewdness, deceitfulness, treachery, malice, etc. ... Loke took part in the creation of man; he gave the senses, the sources of evil desires, the passions, the fire of the veins. ... In his appearance he is beautiful and fair, but in his mind he is evil, and in his inclinations he is inconstant." Rasmus B. Anderson, *Norse Mythology; or, The Religion of Our Forefathers, Containing All The Myths of the Eddas, Systematized and Interpreted. With an Introduction, Vocabulary and Index*, Chicago: S. C. Griggs and Co., 1897, pp. 372-373.

7) Paul Radin, *The Trickster: A Study in American Indian Mythology*, New York: Schocken Books, 1956, pp. 147-151.

8) Stith Thompson, "The Trickster Cycle," *The Folktal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46, pp. 319-328.

9) Paul Radin, *op cit.*, p. 136.

시작했다.¹⁰⁾ 물론 한국 초기 트릭스터 연구에도 김열규가 트릭스터의 이중 인격과 등가적 모순성을 강조한 바 있다.¹¹⁾ 이런 맥락에서 필자도 다른 몇 명의 학자와 같이 경계성(liminality)이라는 개념을 트릭스터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삼아 인물을 설명하고자 했다. 경계성이란 트릭스터가 경계에 존재 하며 경계를 넘나들면서 인간이 설정한 모든 범주와 체계를 초월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용어인데¹²⁾ 이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3. 트릭스터의 실용성

트릭스터의 모순은 트릭스터의 성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설의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트릭스터 이야기 그 자체도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트릭스터 이야기는 비도덕적·비윤리적인 행위를 묘사하고 있지만 것설의 주장과 달리 그런 행위가 항상 독자(혹은 청자)의 비판 대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트릭스터 이야기의 진화론적 실용성은 어디에 있을까? 아일랜드의 트릭스터를 논하면서 해리슨(Alan Harrison)은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트릭스터가 “기본적으로 파괴적이며 짓궂지만 그의 행위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¹³⁾ 해리슨도 트릭스터의 경계성을 강조하는데 트릭스터의 경계성이 이와 같은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비정상적이며 경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자연법과 규제에 구애받지 않아, 표면적으로라도 안정성과 양호통치(良好統治)에 적

10) 이런 점을 지적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T. O. Beidelman, “The Moral Imagination of the Kagaru: Some Thoughts on Tricksters, Transl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Ethnologist* 7(1), 1980, pp. 27-42; Anne Doueih, “Inhabiting the Space Between Discourse and Story in Trickster Narratives,” in William Hynes and William Doty (Eds.), *Mythical Trickster Figures: Contours, Contexts, and Criticisms*,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3, pp. 193-201; Ellen Basso, *In Favor of Deceit: A Study of Tricksters in an Amazonian Society*, Tusc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7.

11) 김열규, 『韓國文學史 : 그 形象과 解釋』, 집문당, 1983, 385-416쪽.

12) 보다 자세한 설명은 졸고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 방학중·정만서·김선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3-31쪽 참조.

13) Alan Harrison, *The Irish Trickst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p. 24.

대적인 이런 언행의 자유가 역설적으로 안정성과 양호통치를 설립하게 한다.”고 설명했다.¹⁴⁾

위와 같은 주장은 얼핏 보면 역설적으로 들린다. 트릭스터가 실패하는 경우는 트릭스터가 어떤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트릭스터담의 논리는 아주 분명하다. 즉, 규칙을 어기면 실패하기 때문에 규칙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다. 트릭스터 실패담을 보자면 북미원주민 트릭스터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당하는 이야기가 숏하게 많다. 특히 라딘이 채록한 왁준카가 연쇄담은 실패의 연쇄담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¹⁵⁾ 왁준카가의 연쇄담에 나오는 ‘서투른 주인(bungling host)’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된다.¹⁶⁾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어떤 동물이 특수한 방법(예를 들면 방귀를 끼어서 사냥감을 죽이는 것)으로 먹이를 잡는 것을 보고 트릭스터가 그 방법을 훔내 내지만 먹이를 잡는 데에 실패하는 내용이다. 트릭스터가 절차를 따르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그 동물이 지닌 특별한 능력이 트릭스터에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하는 것이다. 다른 삽화를 보면 트릭스터가 설사를 일으키는 식물을 먹고 자신의 배설물에 빠져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와 같이 트릭스터가 실패하는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규칙이나 절차를 지켜야 한다든가 자신의 분수를 넘지 말아야 한다든가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사회의 규칙에 구애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규칙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가? 해리슨에 의하면 사회구조가 혼란에 빠졌을 때에는 사회구조 밖에 있는 존재만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한다.¹⁷⁾ 트릭스터는 스스로 속는 경우도 많지만 어리석은 타자를 속이는 경우도 많다. 속는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트릭스터의 꾀에 넘어가는 건데 그 첫 번째의 어리석은 짓은 트릭스터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트릭스터인 줄 알았으면 그의 속임수가 먹히지 않았을 텐데 속는 사람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

14) *Ibid.*, p. 22.

15) 트릭스터 연쇄담 국문역은 줄고 『<토끼전>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73-111쪽 참조.

16) Paul Radin, *op cit.*, pp. 41-49.

17) Harrison, *op cit.*, p. 25.

해서 당하는 것이다. 트릭스터가 사회구조 바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이나 처벌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이런 행위가 사회 규칙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것인지 의문이다. 혹시 사회규칙을 어김으로써 그 규칙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 같다.

문제는 위반된 규칙이 없어도 누군가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왁준카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여자 두 명에게 먼 곳에 자두가 있다고 속인 후 여자들이 자두를 찾으러 나간 사이에 아이들을 잡아먹는 삽화가 있다.¹⁸⁾ 그 여자들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고 아이들도 완전히 무고한 존재이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두를 찾지 못하고 돌아온 여자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왁준카가에게 화를 낸다. 이는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왁준카가는 그 여자들을 다시 속여서 구워먹고 만다. 트릭스터의 말을 믿었다는 죄밖에 없는데 아이들도 죽고 자신들도 죽었다는 이 이야기는 끔찍하기만 할뿐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설화는 북미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곰들이 등장하는 수(Sioux)족의 각편에서 결말에 일종의 교훈이 덧붙여져 있다. “그래서 원주민 여자들은 아이들이 마구 화를 낼 때에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이야기는 곰처럼 화를 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준다.”¹⁹⁾ 구연자가 결론으로 말한 것인지 채록자가 덧붙인 설명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주민 여자들’이라는 말을 보면 후자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어쨌든 간에 이야기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기에 구연자든 채록자든 이러한 설명을 붙였을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그 설명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곰 엄마들이 화를 낸 이유는 트릭스터가 아이들을 죽인 후에 찌개를 만들어서 엄마들과 다른 아이에게 먹였기 때문인데, 그런 경우에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위와 같은 단순한 교훈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다.

18) Paul Radin, *op cit.*, pp. 29-31.

19) Louis Meeker, “White Man. A Siouan Myth,”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5(57), 1902, p. 87.

여태까지 주로 북미원주민 이야기 위주로 논했는데 물론 한국 트릭스터 담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다. 상전을 속이는 꾀쟁이 하인 이야기가 좋은 예다. 서울로 올라가는 상전을 따라가는 길에 주인을 속여서 밥과 술, 심지어 말까지 빼앗는다. 주인이 화가 나서 등에 ‘이 놈이 내려가면 당장 죽여라’하는 편지를 써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하인이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으로 ‘막내딸과 결혼을 시켜라’는 내용으로 바꾼다. 상전이 돌아와서 딸과 결혼한 하인을 발견하고 다시 화를 내어 강물에 빠뜨리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하인은 다시 한 번 꾀를 내어 용케 위기를 피한다. 그리고는 주인을 찾아가 용궁에 갔다 왔다고 속여 주인과 식구가 스스로 물에 빠져죽게 만든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 이야기이다.²⁰⁾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반상갈등(혹은 중심·주변 갈등)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²¹⁾

그러나 중간에 반상의 문제와 상관없는 장면도 있다. 서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직접 연결될 필요가 없는 삽화이면서도 같이 구연이 되는 경우가 많은 장면은 보리떡을 만드는 여자를 속이는 장면이다. 어떤 여자가 아이를 업고 디딜방아로 보리를 찧고 있는데 하인이 도중에 이들을 만나게 된다. 여자가 보리를 찧는 동안 아이를 돌보아주겠다고 하면서 방아가 올라간 사이에 화에서 보리떡을 꺼내고 대신에 아기를 넣는다. 아기가 죽을까봐 여자는 방아를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보리를 가지고 유유히 달아나는 하인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나중에 상전이 하인을 물에 빠뜨리라고 명령을 내렸

20) <상전을 속이는 꾀쟁이 하인> 유형은 특히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많이 채록되었는데 대표적인 몇 편의 권수와 쪽수는 다음과 같다. 1-6, 139-156; 4-4, 93-99; 4-4, 886-891; 5-4, 99-106; 5-7, 640-645; 7-6, 420-424; 7-9, 887-892; 7-14, 716-728; 8-5, 883-892.

21) 예컨대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신동훈, 「신분갈등 설화의 공간구성과 주제」, 『관악어문 연구 제14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103-128쪽; 김대숙, 「說話에 나타나 階層意識 研究」,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94, 291-314쪽; 신동훈, 「가면극 양반마당과 꾀쟁이하인 설화의 비교」, 『한국극예술연구 제2집』, 한국극예술학회, 1995, 7-31쪽; 신연우, 「'상전 속인 하인' 설화의 사회성과 신화성」, 『韓國民俗學 37』, 한국민속학회, 2003, 109-128쪽; 정준식, 「'꾀쟁이 하인 설화'의 형성과정과 전승양상」, 『한국 노지서사의 논리와 미학』, 월인, 2005, 237-264쪽; 김국희, 「상전 속인 하인 모티프의 갈래별 전개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44집』, 한국문학회, 2006, 157-188쪽.

을 때에 그 위기에서 탈출한 장면 역시 자못 이해하기 어렵다. 주인의 명령을 받은 다른 하인들이 그를 포대에 넣어서 메고 강으로 향하다가 도중에 목이 타서 주막에 들리면서 하인이 도망갈 수 없도록 포대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 이때에 꼼짝없이 갇힌 하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속여서 빠져나가는데, 맹인 혹은 절름발이와 같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눈병과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행인에게 포대에 들어가면 눈이 밝아지거나 다리가 낫다고 거짓말을 하여 행인이 그 말을 믿고 그 대신 포대에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도망을 간다. 결국 그 행인이 하인 대신에 물에 빠져죽고 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삽화에서 보리를 찢는 여자나 지나가는 맹인 혹은 절름발이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물론 트릭스터의 말을 믿은 것이 실수지만 비난이나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트릭스터가 이런 자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굴어도 아무 비난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상전을 속이는 것, 심지어 상전을 물에 빠져죽게 만드는 것은 반상갈등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보리떡을 빼앗긴 여자나 물에 빠져죽은 행인은 사회적으로 하인과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트릭스터는 왜 이런 사람들마저도 똑같이 잔인하게 대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전에 반상갈등의 문제를 보다 자세히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트릭스터라는 인물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기에 비교연구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은 성과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 각 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다르듯이 그 민족의 트릭스터들도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북미 원주민의 특정한 트릭스터를 언급하면서 트릭스터라는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논했는데 피쟁이 하인과 같은 한국 트릭스터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북미원주민 트릭스터는 바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트릭스터는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 차이점의 원인을 각 사회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미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대체로 평등하다. 물론 전사나 샤먼과 같은 특수한 직업이 있긴 했지만 계급사회라고 할 수 없다. 반면에 한국 트릭스터담의 배경이 되는 사회는 엄격한 계급사회였다. 그러므로 반상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도 되는 북

미원주민 트릭스터담이 한국 트릭스터담과 다른 방향으로 발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²²⁾

그런데 북미원주민 트릭스터가 그다지 평등하지 못한 사회에 처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아마도 북미원주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동은 백인들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일 것이다. 백인과의 접촉이 일상화가 되자 트릭스터담에도 백인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러 부족의 구연자가 구연하고 채록한 것을 보면 특별히 인기가 많은 이야기는 원주민들을 속이기로 유명한 백인 상인이 트릭스터를 만나게 된 사연에 대한 이야기다. 백인 상인이 자기보다 사기 치는 데에 더 능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트릭스터를 찾아가 사기 경쟁을 하자고 제안한다. 트릭스터는 ‘사기 치는 약을 집에 두고 와서 어렵겠다고 변명하고, 이에 상인이 자신의 말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상인의 말이 낫선 사람을 태우려 하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며 망설이면서 상인더러 옷을 빌려달라고 요구한다. 상인이 옷까지 빌려주자 트릭스터는 말을 덩석 타고 달아난다. 이렇게 해서 그 악명이 높은 백인 상인을 속이는 것이다.’²³⁾

위와 같이 유쾌한 설화가 있는가 하면 한편 백인과의 접촉이 초래하는 보다 섬뜩한 결과를 다루는 이야기도 있다. 키오아(Kiowa)족의 트릭스터로 세인데이(Saynday)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세인데이가 어느 날 수상한 이방인을 만나게 된다. 이 이야기 도입부는 백인의 출현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아주 예리하고 보고 있기에 여기에 인용하고자 한다.

세인데이가 오고 있었는데 오면서 자신의 세상이 모두 변했음을 보았다. 버팔로 떼가 풀을 뜯어먹던 자리에 흰 얼굴을 가진 소들이 있었다. 맑은 물로 가득했던 와시타 강은 붉은 흙으로 탁해졌다. 사슴이나 영양은 덤불 속에 없었고 고원에서 달리지도 않았다. 파란 하늘을 찌르고 솟아오른 하얀 티피도

22) 사회적 배경과 트릭스터담의 관계에 대해서 석·박사학위논문에서 논한 바가 있다. 줄고, 위의 논문(2002), 47-56쪽. 줄고, 위의 논문(2011), 157-170쪽.

23) Richard Erdoes and Alfonso Ortiz, *American Indian Trickster Tales*, Penguin Books, 1998, pp. 107-108.

없었다. 다만 정착민의 움막이 언덕과 개울가를 파고들었다.

세인테이가 혼자서 생각했다. 내 때가 다 되었구나. 내가 살던 세상이 죽었다. 머지않아 키오와 사람들은 백인들의 소 떼처럼 울타리로 둘러막힐 것이며 철조망이 살을 찢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같이 있다고 해도 더 이상 내 민족을 도와 줄 수 없겠구나. 내 때가 다 되었고 이젠 변해버린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겠다.²⁴⁾

그러나 세인테이가 아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다. 동쪽에서 대초원을 천천히 건너오는 사람이 멀리서 보이는데 알고 보니 ‘천연두’라는 사람이다. 천연두가 세인테이에게 키오와족이 사는 곳으로 안내해주면 살려주겠으나 거절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세인테이는 키오와 사람들은 수가 적고 가난하니 키오와의 적이면서 잘 사는 포니(Pawnee)족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한다. 천연두가 그러겠다고 하면서 포니족을 다 죽이면 키오와족을 찾아가겠다고 한다. 이렇게 세인테이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만다. 그래서 천연두가 가고 난 후에 세인테이가 불을 피워서 키오와족 마을을 보호한다.

백인 상인을 속이는 이야기보다 훨씬 어둡고 깊은 주제를 다루는 이야기이다. 북미원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이 백인의 출현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는 점을 트릭스터가 인식하고 머지않아 원주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도 없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자신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의 기능과 역할이 키오와족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문화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바보 같은 짓을 하는 트릭스터는 온데간데없고 가볍게 장난하는 트릭스터도 보이지 않는다. 백인들의 소 떼 때문에 버팔로나 사슴이 사라지고 백인 정착민의 움막 때문에 하얀 티피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이제는 백인들의 질병인 천연두까지 찾아왔는데 여기서 문화영웅이 나서지 않으면 키오와족의 지속적인 생존조차 어렵게 될 판국이다.

24) Franchot Ballinger, *Living Sideways: Tricksters in American Indian Oral Traditions*,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04, pp. 148-149.

이 설화를 듣는 청중 중에 세인테이가 피를 내어 이방인을 속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웃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딘이 불과 10여 년 전에 채록한 왁준카가 이야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띤다.

위와 같이 트릭스터담 향유 집단이 위협을 느낄 때에 트릭스터가 영웅적인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물을 클랩(Orrin Klapp)은 ‘피 많은 영웅’이라고 명명했고²⁵⁾ 한국에서는 ‘민중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²⁶⁾ 그러나 이런 영웅의 행적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왁준카가에 대해 논하면서 케레니(Karl Kerényi)는 트릭스터의 기능을 “질서에 무질서를 추가하여 전체를 만들고 허용된 것의 고정된 범위 안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²⁷⁾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하면 금기시되는 트릭스터의 행위를 실제 생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하게 하여 대리만족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콕아브라함스(Barbara Babcock-Abrahams)는 이런 논리가 트릭스터담을 ‘기능적 안전장치(functional steam-valve)’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락시킨다고 주장했다.²⁸⁾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이든지 현실이 절대로 바뀌지 않기에 대리만족이라도 얻으려는 노력이든지 간에 트릭스터담은 향유 집단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반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상전을 속인 하인의 이야기에 이르면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양상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틀에 들어맞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하층을 대변해서 상층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설화의 목적이라면 왜 같은 하층민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몰고 갈까? 민중영웅이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단순한 민중영웅으로 볼 수는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트릭스터는 경계적인 인물이다. 그러므로 하인이 표면적으로는

25) “The Folk Hero,”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62(243), 1949, pp. 17-25; “The Clever Hero,”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67(263), 1954, pp. 21-24.

26) 트릭스터가 하층민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개념은 김열규가 한국 트릭스터 연구 초기에 제시했다. 김열규, 『北韓의 탈춤(III) 트릭스터탈춤의 主役들(I)』, 『북한』104, 1980, 221-225쪽.

27) Karl Kerényi, “The Trickster in Relation to Greek Mythology,” in Radin, *op. cit.*, p. 185.

28) Barbara Babcock-Abrahams, “A Tolerated Margin of Mess: The Trickster and His Tales Reconsidered,” *Journal of the Folklore Institute* 11(3), 1975, pp. 183-184.

하층에 속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상층에도 하층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런 범주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트릭스터의 입장에서 보면 높은 상전이든 낮은 맹인이든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반상의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경계성의 본질이다. 반겐넵(Arnold Van Gennep)²⁹⁾이 20세기 초반에 소개한 개념인 경계성은 원래 통과 의례의 한 단계로 이해되었다. 즉, 통과 의례에 세 단계가 있다면 경계성은 그 중간 단계이다. 60년 후에 터너(Victor Turner)는 통과 의례를 겪으면서 경계적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대해 “물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구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³⁰⁾ 즉, 통과 의례를 거치기 전에는 서로 계급, 직업, 종교, 심지어 성별이 다르더라도 일단 통과 의례가 시작되면 끝나서 사회와 재결합될 때까지는 이를 구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트릭스터는 이와 같은 눈으로 세상으로 보는데 사회와 재결합하거나 사회구조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단지 모든 구조, 모든 차별, 모든 범주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스칸디나비아의 신인 로키가 이 원리를 잘 보여준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를 악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그러한 견해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본 데에 따른 결과물이다. 선한 신이 아니고 선한 신들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죽게까지 하는 행위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신이라고 규정짓는 것이다. 그러나 로키를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 물론 호드르(Höðr)를 속여서 형제인 발드르(Baldr)를 자신의 손으로 죽게 한 것은 사실이다.³¹⁾ 또한 이 사건이 토르(Thor)나 오딘(Odin)이 죽고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락나룩(‘신들의 운명’)으로 향하는 길의 첫걸음이라는 것도 사실이다.³²⁾ 그러나 신들의 세상이 이렇게 종말을 맞으나 그 이후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날 거라는 예언도 있다. “그 때에 땅이 바다에서 올라오

29) Arnold Van Gennep, *The Rites of Passage*, tr. Monika B. Vizedom and Gabrielle L. Caffe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30) Victor Turner, “Betwixt and Between: The Liminal Period in *Rites de Passage*,” *The Forest of Symbols: Aspects of Ndembu Ritual*,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p. 95.

31) 발드르의 죽음에 대하여 <新에다>(The Prose Edda) 중에 <길파진닝> 49장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32) 그 전에는 로키가 토르를 비롯한 다른 신들을 돕기도 했는데 발드르의 죽음을 초래한 이후로 다른 신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新에다> 중에 <길파진닝> 50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며 파릇파릇해지고 아름다워지리라.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땅의 열매가 나오리라.”³³⁾ 그러므로 로키가 신들의 운명을 초래하는 동시에 신세계의 출현도 가능케 한 것이다. 로키는 과연 옛 체제가 멸절히 있는 한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가능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랬을까? 그런 의도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로키는 소위 선한 신들만큼 필수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에 로키가 참여하지 못했다. 락나록에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만다.

이와 같이 상전을 속인 피쟁이 하인도 사회질서나 사회구조를 절대로 반대하는 자이다. 기존 구조에 있어서 억압받는 자의 구원자 혹은 영웅이라기보다는 그 구조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회에 속하면 그 사회 밖에 있는 체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민주주의에서 자라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독재주의 체제 하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독재주의 하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두려워 할 수도 있다. 최근의 시사를 보아도 증명되는 사실이다. 몇 년 전 소위 ‘아랍의 봄’ 혁명 당시 전 세계가 큰 희망을 품었으나 ‘민주주의 실험’에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런데 설화적 인물인 트릭스터는 신체제를 도입하려면 구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원리의 표명이다. 경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범주나 질서, 체제가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사실을 꿰뚫고 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중에 어떠한 하나의 현상도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언제나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피쟁이 하인의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통해 역설적으로 반상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언뜻 보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트릭스터의 ‘실용성’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33) Snorri Sturluson, *The Prose Edda*, Arthur Gilchrist Brodeur (Trans.), Mineola: Dover Publications, 2006, p. 83.

4. 역사적으로 본 트릭스터

여느 나라와 같이 한국 트릭스터도 분명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을 텐데 현재 남아있는 구비설화는 모두 일제강점기나 그 이후에 채록된 것이어서 당시(즉, 조선시대)의 모습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문헌설화 중에도 나중에 구비설화로 남겨진 내용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비설화에서 보이는 트릭스터에게 분명한 족보가 있는 셈이다.³⁴⁾

여기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위에서 언급한 상전을 속인 하인에 대한 설화의 흔적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서울에 올라가서 주인이 경고의 말(言)과 함께 말긴 말(馬)을 팔아먹는 삽화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예를 들면 조선 말기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記聞叢話』를 보면 구집(具集)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화가 발견된다. 아들이 지방 출장을 가면서 자신의 말의 꼬리가 예뻐서 도둑이 잘라서 가져갈까봐 걱정을 하니 말을 훔쳐가지 않도록 구집이 미리 꼬리를 잘라서 따로 보관한다는 일화다.³⁵⁾ 그보다 구비설화와 더 유사한 이야기는 19세기에 편찬된 『古今笑叢』 중에 나오는 『醒睡釋說』에 실려 있다. 주인이 이름 없는 종에게 말을 말기면서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강조하기 위해서 코를 베어간다고 과장한다. 종이 이를 듣고 주인이 간 후에 말안장을 팔아버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주인에게 코를 빼앗길까봐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말안장을 훔쳐갔다 보다고 대답한다.³⁶⁾ 두 편의 이야기는 모두 구비설화를 연상시키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바로 전자의 주인공은 후자의 주인공인 트릭스터와 달리 단순히 바보라는 점이다. 전자와 후자의 설화 모두 비슷한 시기에 편찬되었고 시대배경도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초점이 다른 점을 보면 인물의 성격 차이가 어떤 역사적인 발달이라기보다는 저자의 의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34) 이어서 언급한 문헌설화와 한문소설에 대해서 박사학위논문에서 필자가 처음 연구한 바가 있다. 졸고, 위의 논문(2011), 196-201쪽, 206-221쪽.

35) 김현룡, 『한국문헌설화』7,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343-344쪽.

36) 위의 책, 367쪽.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헌설화 말고도 구비설화를 소설화한 시도도 있었다. 1906년에 연재된 한문소설인 『神斷公案』에는 구비설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소설이 있다. 어복손이라는 피쟁이 하인이 등장하는 마지막 이야기인데 총 70회로 7개 소설 중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연재되었다. 이야기의 내용은 대체로 피쟁이 하인 설화의 줄거리를 따르기는 하나 달라진 부분도 많고 설화에는 없는 내용도 많다.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구비설화보다 서사가 정교해지고 길어진 측면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도입부와 결론이다. 1회에서 어복손이 신세한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대체 나란 놈은 뭇이 길래 위로는 공경대부나 부귀한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아래로는 향촌의 사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남의 집 노비로 하찮게 태어났단 말인가?”³⁷⁾ 이어서 주인 앞에서 엎드려서 속량해달라고 애원하는데 물론 주인이 속량을 해주지 않고 어복손의 애원을 듣다못해 매를 때리기까지 한다. 여기서 어복손이 복수를 감행할 명분을 갖게 되기는 하나 구비설화에서 보이는 피쟁이 하인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비설화가 하층민을 통해 전해 내려온 것임을 고려하면 설화에서도 신세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올 법도 한데 구비설화 속 피쟁이 하인은 그런 한탄을 하지 않고 바로 작전을 개시한다. 더구나 어복손은 차별을 인식하지 않는 경계적인 트릭스터와 달리 차별의 현실을 너무나 절박하게 파악하고 있고 자신의 능력보다 주인의 은혜에 의지하려고 한다.

결론에 있어서 구비설화와 같이 어복손도 주인과 주인의 식구를 속여서 물에 빠져 죽게 하지만 주인 가족의 무시로 막내딸과 결혼도 이루지 못하고 막내딸의 마음을 얻지 못해 결국 그녀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만다. 그 이후로 도망을 가는데 죽은 주인과 그의 식구가 꿈에 나타나 괴롭힌다. 마지막에 우연히 발각되어 수령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고, 감옥에 갇혔다가 처형된다. 소설은 다음과 같은 평자의 말로 마무리된다. “어두운 방에서 남을 속여도 신의 눈이 번개 치듯 하는 법. 누가 악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가. 심하구나, 악을 행한 화라는 것이! 처음 화는 남에게 미치지만

37) 한기형·정환국 역주, 『역주 신단공안 神斷公案』, 창비, 2007, 282-283쪽.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나니, 오호라 경계하지 않으랴!”³⁸⁾ 트릭스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사회질서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할 텐데 어복손은 그렇지 못하다. 언제나 사회질서에 구애받고 있고 그 질서로 인해 죽음을 맞는다.

흥미로운 점은 「어복손전」도 나름 사회질서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어복손의 신세한탄이 나오기 전에 평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노비를 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악습이기에 진정 법을 세워 금지해야 한다. 지금 오씨 집안의 일을 보면 더욱 오싹해진다.”³⁹⁾ 즉, 징악의 메시지와 함께 사회개혁적인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트릭스터담과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일단 “법을 세워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상의 차별을 없애거나 계급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만 바꾸자는 것이다. 또한 호소하는 대상이 권력자다. 주인인 오씨의 집안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권력을 지니는 독자에 겁을 주려는 의도이다.⁴⁰⁾ 어떻게 보면 트릭스터담보다 현실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복손전」의 사회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구조가 들어온 것을 보면 어찌면 트릭스터담이 보다 긴 안목으로 현실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자료를 볼 때 트릭스터의 역사적인 발달을 그리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된다. 역사가 흐르면서 트릭스터담이 일정한 발달과정을 거친다기보다는 오히려 각 향유 집단에 의해 조정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트릭스터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그 모습이 변하는 것이다. 세인데이엔 변해버린 세상에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마찬가지로 사회구조가 어떤 모습을 띠든 트릭스터가 그것과 맞서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이다.

38) 위의 책, 406쪽.

39) 위의 책, 282쪽.

40) 물론 이 소설이 연재된 1906년에는 이미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12년이 경과했으므로 이런 말은 전 시대의 잔존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5. 나오면서

이 논문은 갯설이 주장한 ‘도덕실용성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원한 길로 트릭스터의 역사적 기능에 대한 몇 가지의 생각에 도달했다. 마무리하는 의미로 갯설의 책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기존 도덕과 윤리와 같은 ‘공동의 가치관을 보장’하고 ‘사회적 무질서’를 막는다고 주장했지만 트릭스터담은 예외라고 하고 싶다. 예외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공동가치를 부정하고 사회적 무질서를 선동하고 있다. 갯설이 말한 이야기는 오히려 『神斷公案』의 「어복손전」과 맞는 것인데 그것은 진정한 트릭스터담이라고 할 수 없다. 트릭스터담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충동이 이면에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악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질서나 체제, 윤리나 도덕을 지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발전하며 진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맥락에서 트릭스터담이 역사의 흐름과 함께 해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위와 같은 논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트릭스터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기본적인 개념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여러 문화의 트릭스터 인물을 언급하느라 짜깁이 하인에 대해서 보다 깊이 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데,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또한 역사적인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통시적인 연구를 시도한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트릭스터를 역사적으로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트릭스터에 대한 탐구와 이해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한국구비문학대계』(전82권), 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김현룡, 『한국문헌설화』7,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한기형·정환국 역주, 『역주 신단공안 神斷公案』, 창비, 2007.
Ballinger, Franchot, *Living Sideways: Tricksters in American Indian Oral Traditions*,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04.
Erdoes, Richard and Alfonso Ortiz, *American Indian Trickster Tales*, Penguin Books, 1998.
Meeker, Louis, “White Man. A Siouan Myth,”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5(57), 1902, pp. 84-87.
Radin, Paul, *The Trickster: A Study in American Indian Mythology*, New York: Schocken Books, 1956.
Sturluson, Snorri, *The Prose Edda*, Arthur Gilchrist Brodeur (Trans.), Dover Publications, 2006.

단행본

- 김대숙, 『說話에 나타나 階層意識研究』,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94, 291-314쪽.
정준식, 『‘피쟁이 하인 설화’의 형성과정과 전승양상』, 『한국 노지서사의 논리와 미학』, 월인, 2005, 237-264쪽.
Anderson, Rasmus B., *Norse Mythology; or, The Religion of Our Forefathers, Containing All The Myths of the Eddas, Systematized and Interpreted. With an Introduction, Vocabulary and Index*, Chicago: S. C. Griggs and Co., 1897.
Basso, Ellen, *In Favor of Deceit: A Study of Tricksters in an Amazonian Society*, Tusc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7.
Boas, Franz, “Introduction,” in J. Teit, *Traditions of the Thompson River Indians of British Columbia*,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1898, pp. 1-18.
Brinton, Daniel, *The Myths of the New World: A Treatise on the Symbolism*

and Mythology of the Red Race of America, London: Trübner & Co., 1868; “The Hero-God of the Algonkins as a Cheat and Liar,” *Essays of an Americanist*, Philadelphia: Porter & Coates, 1885-1890, pp. 130-134.

- Gottschall, Jonathan, *The Storytelling Animal*, New York: Mariner Books, 2012.
 Harrison, Alan, *The Irish Trickst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Thompson, Stith, “The Trickster Cycle,” *The Folktal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46, pp. 319-328.
 Turner, Victor, “Betwixt and Between: The Liminal Period in Rites de Passage,” *The Forest of Symbols: Aspects of Ndembu Ritual*,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pp. 93-111.
 Van Gennep, Arnold, *The Rites of Passage*, tr. Monika B. Vizedom and Gabrielle L. Caffe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논문

- 김국희, 「상진 속인 하인 모티프의 갈래별 전개양상과 의미」, 『한국문화논총 제44집』, 한국문화학회, 2006, 157-188쪽.
 김열규, 「北韓의 탈춤(III) 트릭스터탈춤의 主役들(I)」, 『북한』104, 1980, 221-225쪽.
 김열규, 『韓國文學史 : 그 形象과 解釋』, 집문당, 1983, 385-416쪽.
 나수호, 「〈토끼전〉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 방학중·정만서·김선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신동훈, 「신분갈등 설화의 공간구성과 주제」, 『관악어문연구 제14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103-128쪽.
 신동훈, 「가면극 양반마당과 피쟁이하인 설화의 비교」, 『한국극예술연구 제2집』, 한국극예술학회, 1995, 7-31쪽.
 신연우, 「‘상진 속인 하인’ 설화의 사회성과 신화성」, 『韓國民俗學 37』, 한국민속학회, 2003, 109-128쪽.
 Babcock-Abrahams, Barbara, “A Tolerated Margin of Mess’: The Trickster and His Tales Reconsidered,” *Journal of the Folklore Institute* 11(3), 1975, pp. 147-186.
 Beidelman, T. O., “The Moral Imagination of the Kagaru: Some Thoughts on Tricksters, Transl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Ethnologist*

7(1), 1980, pp. 27-42.

Boas, Franz. "Mythology and Folk-Tales of the North American Indian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27(106), 1914, pp. 374-410.

Doueih, Anne, "Inhabiting the Space Between Discourse and Story in Trickster Narratives," in William Hynes and William Doty (Eds.), *Mythical Trickster Figures: Contours, Contexts, and Criticisms*,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3, pp. 193-201.

Karl Kerényi, "The Trickster in Relation to Greek Mythology," in Paul Radin, *The Trickster: A Study in American Indian Mythology*, New York: Schocken Books, 1956, pp. 171-191.

Klapp, Orrin, "The Folk Hero,"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62(243), 1949, pp. 17-25.

Klapp, Orrin, "The Clever Hero,"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67(263), 1954, pp. 21-24.

The Historical Function of the Trickster:
A Study of the Clever Servant Tale

Charles La Shure

This paper examined the historical function of the trickster figure and the tales in which he appears. In particular, it attempted to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y seemingly negative tales were continuously handed down when they ran afoul of the ethical and moral value systems supported by the social order. It was in part a reaction to Jonathan Gotschall's claim in *The Storytelling Animal* that narrative plays a morally supportive role, and in part an attempt to com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trickster tale.

I first discussed scholarly opinions in the West on the trickster's dual or ambiguous nature and then introduced the concept of liminality as the trickster's defining feature. This was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the trickster's practicality, an examination that dealt with the question of what sort of evolutionary practicality could trickster tales have if they did not reinforce moral values and thereby also reinforce the social order. Native American tricksters and the Scandinavian trickster deity Loki were offered as examples, but the main focus of the discussion was the Korean tale of the clever servant who deceived his master. This tale can be seen as one that deals with class conflict, but there are other victim's of the servant's wiles besides the master: lower-class characters such as a common woman and a passerby down on his luck. This shows that the trickster here is not a lower-class hero who defies his upper-class master, but a liminal figure who seeks to bring down the entire social structure. This desire is an expression of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only possible to create a new world once the old world has been torn down. Finally, I also examined in brief some recorded tales and a novel that deal with the same themes and characters, showing how the trickster may be imag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uthor's social values.

Ultimately, the strong opposition to the social structure seen in tricksters in oral tales like that of the clever servant is a result of the historical function they play as pathfinders to the creation of a new world.

Keywords: trickster, historical function, liminality, clever servant

접수일자: 2014. 9. 30. 심사기간: 2014. 10. 1. ~ 2014. 11. 10. 게재결정: 2014. 11. 10.
